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6.01.14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2026년 유럽 연구혁신 정책 전망(1.8)
- ② EIC의 보조금+지분투자 혼합형 자금 지원 방식이 과학 스타트업에 효과적 - 연구 결과(1.12)
- ③ Erasmus+ 프로그램 예산 확대 요구(1.8)
- ④ 핀란드, 연구 인재 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 연구자 유치(1.9)
- ⑤ 2026년 사이버 전쟁 전방위 확산 ... AI 에이전트와 우주 위성 공격이 핵심(1.12)
- ⑥ 미국, 다수의 국제 연구·기술 기구 탈퇴 결정(1.8)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혁신적인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이 EU를 떠나는 이유(1.12)
- ② (행사) Horizon Europe CL4 정보 설명회(1.29~1.30)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DanceMap 프로젝트, 사라질 위기의 유럽 현대무용 유산을 기록하다
- ② (성공사례) TIREX 프로젝트, 튀르키예 이식 연구 재편
- ③ (성공사례) RAISE 프로젝트, 데이터 공유·접근·처리의 투명성 제고
- ④ (성공사례) OptFor-EU 프로젝트, 기후변화로부터 유럽 산림을 지키다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2026년 유럽 연구혁신 정책 전망(1.8)

- (1분기) 유럽 혁신 규제 패키지 공개 및 호라이즌 유럽 마지막 2년 본격 착수
 - EU 집행위원회는 혁신 성과가 시장 진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채택 예정.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연구 인프라 접근성 개선, 기술 이전·상용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유럽 전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이와 함께 기업이 국가·EU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28번째 체제(28th regime)'를 제안하여, 기업의 국경 간 성장을 촉진할 계획
 - 제안된 법안들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 합의가 필요하며, 2026년 상반기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관련 논의 개시를 추진
 - 한편,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마지막 2개 연도(2026~2027년) 워크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정보 설명회(인포데이)를 개최하며 연구자·혁신가 간 자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2분기) 차기 호라이즌 유럽·유럽경쟁력기금(ECF) 제도 설계 협상 가속
 - 집행위가 2025년 7월 제안한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총 1,750억 유로)과 ECF(4,510억 유로)을 둘러싼 본격적인 제도 협상이 진행
 - 유럽의회는 1월 28일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논의를 시작으로, 2월 말 전문가 공청회 개최 후 3월 3일(호라이즌 유럽)과 4월 7일(ECF)까지 각각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불확실)
 - 이후 위원회 내 수정안 제출과 내부 합의를 거쳐 여름 이전에 의회 입장 확정을 목표로 하며, EU 이사회 역시 병행 협상을 통해 6월까지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공통 입장 도출을 추진. 순조로울 경우 10월경 의회-이사회 간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 (3분기)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 등 연구 시스템 개혁 입법 공개

- 집행위는 연구자 이동성 제한, 국가별 연구 시스템 격차 등 유럽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RA Act를 발표할 예정
- ERA Act에는 연구자 경력 개발을 위한 최소 기준 설정, 연구자·지식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GDP 대비 R&D 투자 3%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전망
- 해당 법안은 발효에 앞서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현 임기 종료 시점(2029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함께 집행위는 전략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기술법(Quantum Act)과 제2차 유럽 생명공학법(European Biotech Act)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

○ (4분기) 제도 정비 및 호라이즌 유럽·ECF 기관 간 협상 단계 진입

- 연말에는 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이 본격화되며, 차기 프로그램의 최종 윤곽이 점차 구체화 될 전망
- 한편 집행위는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을 다루는 단일기본법(Single Basic Act)을 제안해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의 지식 이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역할과 존속 여부를 규정하는 후속 법안도 마련할 계획(일부 회원국의 폐지 요구로 향후 방향성은 불확실)
- 최종 합의와 공식 채택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됨
- 또한, 집행위가 올해 도입하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시범 운영됨. 예를 들어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슈퍼 그랜트’와, 미국 ARPA 모델에 기반한 단계별 자금 지원을 시험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의 ‘Advanced Innovation Challenges’가 이에 해당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rizon-europe/heres-what-2026-has-store-european-research-and-innovation-policy>

2 EIC의 보조금+지분투자 혼합형 자금 지원 방식이 과학 스타트업에 효과적 - 연구 결과(1.12)

- 유럽혁신위원회(EIC)와 같은 보조금+지분 투자 형태의 혼합형 자금 지원 방식이 과학 기반 스타트업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옴
 - 이번 달 학술지 Research Policy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과학적 성향이 강한 스타트업일수록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늦게 받는 경향이 있음
 - 과학 기반 기업에 단순히 VC 자금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움
 - 연구진은 보조금과 지분 투자를 병행하는 EIC와 같은 혼합형 자금 수단이나 공공조달 방식이 보다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
 - 논문 공동 집필자 Prakash Nagar는 과학 기반 창업자들이 연구와 기술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시장 검증과 상업화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양측 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고 지적
 - 과학 기반 혁신은 새롭고 영향력이 크며 기대 가치가 높아 VC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반면, 시장 검증이 늦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가 초기 투자에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음
 - 자금 유치가 늦어진 스타트업은 성공적인 엑시트 달성 가능성이 낮고, 전체 유치 금액과 기업가치도 낮으며, 후속 투자 단계로의 진전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정책적으로 단순히 VC 유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학 기반 스타트업에 자금이 '조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news-articles/article/1417984>

③ Erasmus+ 프로그램 예산 확대 요구[1.8]

- 유럽 고등교육 기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Erasmus+ 차기 프로그램에 최소 600억 유로* 배정을 요청

* 이는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408억 유로 대비 47% 증액된 규모이며, 유럽 의회 요구안(750억 유로)보다는 낮은 수준임

- 유럽대학협회(EUA)와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 등 대학 단체들은 현 예산안으로는 전략 분야 장학금 확대 및 연구·혁신(R&I) 관련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차기 Erasmus+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함
- 독일학술교류처(DAAD)는 2030년까지 대학 졸업생의 약 4분의 1이 해외 경험 목표 달성을 위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최소 20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함
- Erasmus+ 프로그램은 국제 학술 협력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평가됨
- 대학 단체들은 충분한 예산 확보 시 Erasmus+ 프로그램이 역량 개발·디지털화·인재 유치 등 주요 우선 과제 달성 및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유지하며 유럽 노동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집행위원회는 차기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① 이동성 및 포용성 강화 ② 기술연합(Union of Skills) 구축 ③ 유럽대학연합(European Universities Alliances) 등 기존 제도 공고화 ④ 전략 분야 장학금 신설 ⑤ 유럽연대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 내 청년 기회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rasmus/erasmus-needs-least-eu60-billion-meet-agreed-priorities-universities-say>

4 핀란드, 연구 인재 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 연구자 유치(1.9)

- 핀란드는 해외 연구 인재 유치를 위한 신규 교수직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브라질·영국·미국 등에서 총 11개국 출신 연구자를 유치
 - 핀란드연구위원회(RCF)는 총 5천만 유로 프로그램의 첫 지원금으로 2,750만 유로를 지원하며, 각 연구자들은 약 250만 유로씩 지원받아 핀란드 대학*에 5년간 정착하며 자체 연구팀을 꾸릴 예정
- * 헬싱키대, 알토대, 동핀란드대, 유배스켈라대, 오울루대, 바사대, 행켄경제대
- RCF는 이번 공모에 높은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는 핀란드의 연구 환경이 국제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
- 이번 계획은 핀란드 대학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의 'Profi' 프로그램을 변형한 것으로, 핀란드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최국 미국의 연구 자금 중단과 대학 운영 개입이 이어지자, 유럽 각국과 EU는 유사한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는 추세
 - EU는 Choose Europe 프로그램에 최소 5억 유로를 배정했으며, ERC의 연구자 이주 지원금도 최대 200만 유로로 상향됨
 - 독일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25개국에서 74명의 연구자를 유치했고, 노르웨이도 2,600만 유로 프로그램으로 13명을 유치(이 중 10명은 미국 출신)
 - RCF는 자국 프로그램의 규모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하다고 강조
 -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나 예산 지연 또는 삭감과 같은 문제도 병존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news-articles/article/1418008>

5] 2026년 사이버 전쟁 전방위 확산 ... AI 에이전트와 우주 위성 공격이 핵심[1.12]

※ 동 기사는 사이버 보안의 향방을 예측한 주요 보고서를 정리

- 사이버 위협이 증가에 따라 보안 대응 필요성이 시급해졌으며, 2026년에는 사이버 보안이 각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
 - 2025년 유럽은 공항 마비, 선거 조작 의혹, GPS 스푸핑, 우주 위성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고, 랜섬웨어 공격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음
 -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만 DDoS 공격이 320만 건 발생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최근 5년간 약 3천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입음
 - 포레스터(Forrester)는 2026년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정치적 불안과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보안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분석
 - 구글 클라우드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이 반도체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미국·서방 국가들을 겨냥한 정보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모스크바가 폴란드, 독일, 몰도바처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조작 행위를 지속 할 것으로 보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친정부 성향의 가짜 뉴스 웹사이트를 통한 여론 조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포레스터는 EU가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악용 중인 보안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시
- AI는 사이버 공격과 방어 양측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
 - 특히 인간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인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됨
 - 새로운 공격 기법에 AI가 악용되어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프롬프트 주입(prompt injection), 보이스피싱, 이메일 피싱 등이 증가할 전망

-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공격 내용을 요약하고, 악성 코드를 해독하며, 해커의 전술을 식별하는 등 방어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사이버 전장은 우주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에는 GPS 시스템이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2026년에는 위성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공격자는 GPS 신호를 방해하거나 가짜 신호를 전송해 드론이나 미사일 경로를 변경하거나 항공기의 위치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교란을 시도
- 항공, 해운, 방산 분야는 GPS 교란에 취약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성 통신에 대한 암호화 계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출처

<https://www.euronews.com/next/2026/01/12/from-ai-breaches-to-rising-geopolitical-threats-heres-what-to-expect-from-cybersecurity-in>

⑥ 미국, 다수의 국제 연구·기술 기구 탈퇴 결정(1.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 환경, 기술, 연구 분야를 포함한 수십 개의 국제기구에서 미국 탈퇴 지시

- 해당 조치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러한 탈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으나,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글로벌 과학 협력 후퇴를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됨
- EU의 전임 수석 과학외교관은 지난달 “미국이 과학적 리더십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
- 이번 탈퇴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제조에서 미국이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 뒤처진 상황에서, 석유·가스 수출을 통한 ‘에너지 지배력’ 강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함
- 일부 탈퇴 조치는 유럽과의 안보 협력 약화를 시사하며, 러시아·중국의 군사·비군사 수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기구에서도 미국이 빠지는 상황

○ 과학·기술 정책에 영향이 큰 주요 탈퇴 기구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미국의 완전 탈퇴는 기후과학 분야에서의 후퇴를 의미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전 분야에서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기준 설정을 담당
-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ISA)**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분야에 1조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부유식 태양광 등 관련 보고서 발간과 전력망 취약국 대상 태양광 미니 그리드 확대 프로젝트 운영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A)** 170개국과 EU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협력 기구로, 미국 탈퇴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기후 해법이자 경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평가
-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훈련 기구
- **(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 러시아·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 연구, 미국은 창립 회원국이었음
-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미주 지역의 지리·역사·지구물리 연구를 조정
- **(Forum of European National Highway Research Laboratories)** 유럽 국가 간 도로 연구 협력 네트워크
- **(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미주 지역 환경·기후 연구 협력 기구
- **(United Nations University)** UN 산하 연구·교육 기관으로, 보건·바이오·통신기술 등 분야 연구 수행
- 이 외에도 미국은 생물다양성·생태계 서비스 관련 정부간 플랫폼, 국제 에너지포럼, 국제예술위원회연맹 등에서도 탈퇴 결정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international-news/us-withdraws-multiple-global-research-and-technology-organisations>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혁신적인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이 EU를 떠나는 이유(1.12)

- 최근 연구는 혁신 스타트업·스케일업이 EU 밖으로 이전하는 주요 이유로 벤처캐피털 접근성, 대규모 통합 시장 접근, 유리한 규제 환경, 상업·영업 인재의 풍부함 등이 공통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EU 내 혁신 스타트업·스케일업의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럽이 고성장 잠재력 기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조사 대상은 디지털·딥테크, 바이오테크, 클린테크 등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들로, 최근 15년 내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을 해외로 이전한 440개 기업 중 91곳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 이 중 71개 기업의 사례를 분석
 - 대부분의 기업은 전체를 이전하기보다는 법적 본사나 핵심 경영 기능을 해외로 옮기고,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 등 주요 활동은 EU 내에 유지하는 ‘부분적 이전’ 전략을 택함
 - 특히 미국 기반 투자자들이 법적 본사나 주요 조직의 해외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 유치를 위해 이전을 결정하는 사례도 있음
 - 미국은 벤처 자금, 시장 규모, 규제 환경, 인재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EU보다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되는 반면, EU는 시장이 분절돼 있고, 관료주의적이며, 특히 기업이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지원이 부족하고 위험 회피적인 문화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음
 - 설문에 참여한 창업자들은 EU가 혁신 친화적 규제 강화, 성장 자본 접근성 개선, 국제 인재 유치·유지 여건 강화, 국제적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why-innovative-startups-and-scaleups-relocate-eu-2026-01-12_en

② [행사] Horizon Europe CL4 정보 설명회(1.29~1.30)

- 1월 29~30일 Horizon Europe CL4 정보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 디지털·저탄소·순환형 산업을 위한 연구혁신 자금 지원 기회를 소개

Horizon Europe Cluster 4 정보 설명회 (온라인)

- 일정: 2026년 1월 29일(목) ~ 30일(금)
- 방식: 온라인(Webex)

대상

다음과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
- 첨단 소재 개발
- 글로벌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반 조성

핵심 주제

- 제조 기술
- 핵심 디지털 기술(양자 기술 포함)
- 신형 범용기술
- 첨단 소재
- 인공지능(AI) 및 로봇틱스
- 차세대 인터넷
- 고성능 컴퓨팅(HPC) 및 빅데이터
- 순환형 산업
- 저탄소·청정 산업
- 우주 및 지구 관측 기술

프로그램 구성

- Horizon Europe 및 Cluster 4 정책 배경 설명
- 2026년도 워크프로그램 주요 주제 소개
- 지원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제공

일정 개요 ※ 상세 일정은 추후 공개 예정

1일차 (1월 29일)	2일차 (1월 30일)	부대 행사: 파트너 매칭
▪ 전체 회의(Plenary) ▪ 성공 전략 ▪ Destination 1, 4 세션	▪ Destination 2, 3, 5 세션 ▪ 병렬 세션 진행	▪ 각국 NCP 주관 브로커리지 ▪ 네트워킹 및 공동 프로젝트 파트너 발굴 기회 제공

출처 <https://research-innovation-community.ec.europa.eu/events/3XGgEMlgVCmkeXoi9FVs32/overview>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DanceMap 프로젝트, 사라질 위기의 유럽 현대무용 유산을 기록하다

- EU 지원 프로젝트 DanceMap, 기록 없는 예술인 현대무용 유산 보존에 착수
 - 현대무용은 책·회화·음악과 달리 보편적인 악보나 영구적 기록 체계가 없어, 무용수가 무대를 떠나면 작품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 현대무용의 상당한 유산은 문서가 아닌 무용수의 몸과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음
 - EU 지원 연구 이니셔티브 DanceMap은 이러한 현대무용 유산이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이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베를린 소재 비영리 문화기관 Bureau Ritter의 Ritter는 현재 국가 문화유산 정책이 건축물·문서·유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무용과 같은 예술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독일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문화유산 예산은 박물관·도서관·기념물에 집중되며, 공연 순간에만 존재하는 무용은 국가 차원의 공식 문화유산 체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디지털 매핑과 '살아 있는 아카이브'를 통한 유산 가시화 시도
 - DanceMap은 단일 중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대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무용 유산을 디지털 매핑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
 - 기관 아카이브, 개인 소장 자료, 개인 저장장치뿐 아니라 무용수의 신체에 축적된 지식까지 유산의 일부로 인식
 - 프로젝트 책임자인 Bowler는 이 프로젝트가 무용을 박물관 전시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무용 역시 역사성을 지닌 예술임을 인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DanceMap은 유럽 전역 조사를 통해 기존 무용 아카이브와 개인 컬렉션, 지식 보유자를 식별하며, 구술사 연구를 병행
- 벨기에 루뱅의 STUK에서 구술사 연구를 이끄는 테사 홀은, 무용수를 '살아 있는 아카이브'로 보고 움직임을 동반한 인터뷰를 통해 기억을 기록
- 이러한 기록은 제도권 아카이브뿐 아니라 팟캐스트 등 공개 채널을 통해 연구자·학생·일반 대중에게도 제공될 예정
- 안무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용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창작 되고, 학습되며,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도 포함

DanceMap 프로젝트

- 기간 : 2025.01 ~ 2027.12
- 예산 : 전체 예산 미공개 (EU 3 944 967 유로 지원)
- 총괄 : BUREAU RITTER GUG (HAFTUNGSBESCHRANKT) (독일)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horizon-magazine/memory-motion-mapping-europes-hidden-dance-heritage>

② [성공사례] TIREX 프로젝트, 튀르키예 이식 연구 재편

- EU 지원 TIREX 프로젝트, 임상 중심이던 튀르키예 장기이식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임상 성과에 비해 연구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TIREX 프로젝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상 성과를 뒷받침할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코치 대학교의 Süsal 교수가 이끄는 TIREX는 튀르키예 최초의 장기 이식 연구 분야 전담 우수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 동 프로젝트는 현대적 연구 인프라 구축, 신진 연구자 양성, 유럽 및 중동 지역의 첨단 면역학 연구와의 연계를 핵심 목표로 설정

- Süsal 교수는 “튀르키예에서는 많은 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과학 연구는 부족했다”며, TIREX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식 연구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
- TIREX는 초기 단계부터 인재 양성에 집중해, 면역학·이식학 분야 석·박사 과정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와 임상 의사를 교육
- 프로젝트를 통해 고처리량 유세포분석, 유전자 타이핑, 분자 진단 장비 등이 도입돼, 과거 해외에 의존하던 분석을 국내에서 수행 가능해짐
- AI와 고급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이식 거부 반응을 예측하는 면역학적 패턴을 분석하고, 환자 치료 성과 개선에 기여
- 연구 성과는 임상 현장과 직접 연결돼, 기증자-수혜자 매칭 개선, 이식 후 관리 및 장기 보존 기술 연구로 이어지고 있음
- 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출판이 확대됐으며, 2024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CTS-TIREX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 프로젝트는 국가 바이오뱅크 구축도 병행해, 향후 암·당뇨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면역세포 연구 등 장기적 연구 기반을 마련
- 2026년 5월 종료를 앞둔 TIREX는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연구 문화와 국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Tirex 프로젝트

- 기간 : 2020.09 ~ 2026.05
- 예산 : 약 2 499 938 유로 (EU 2 499 938 유로 지원)
- 총괄 : KOC UNIVERSITY (튀르키예)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inside-lab-reshaping-transplant-research-turkiye>

③ [성공사례] RAISE 프로젝트, 데이터 공유·접근·처리의 투명성 제고

- EU 지원 RAISE(Research Analysis Identifier SystEm) 프로젝트는 연구 데이터가 안전하게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민감 데이터 보호, 연구 성과 인정,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함
 - 많은 연구자들은 데이터 공개 이후 사용 방식과 활용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유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음
 - RAISE는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방문(data visiting)’하는 개념을 도입해 연구자들의 우려를 해소
 -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테살로니키 대학 의료물리·디지털혁신 연구실의 Konstantinidis 교수는 RAISE가 공개 공유가 불가능한 데이터셋까지 연구에 활용 가능하게 해 오픈 리서치를 위한 데이터 가용성을 확대한다고 설명
 - RAISE 기술은 데이터 제공자가 자체 인프라 내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면서도, 접근 권한과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신뢰된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해 분석을 수행
 -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은 기록되며, Research Analysis Identifier(RAI)가 부여돼 재현성 확보, 추적 가능성, 기여도 인정 및 민감 데이터 규제 준수를 보장
 - 프로젝트 출범 이후 3년간 RAISE 플랫폼 출시와 블록체인·AI 기반 스피노프 기업 설립 등 성과를 달성
 -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기존에는 공유가 어려웠던 데이터셋을 통제된 방식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 환경을 구축할 계획
 - 연구자는 데이터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게 되며,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

- 후속 EU 지원 프로젝트인 RAISE Suite는 FAIR 원칙을 충족하는 고품질 데이터셋 자동 생성 도구와 기계 판독 가능한 데이터 관리 계획을 도입해, 데이터 수집부터 공유·처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

RAISE 프로젝트

- 기간 : 2022.10~2026.01
- 예산 : 약 4 836 125 유로 (EU 4 836 125 유로 지원)
- 총괄 : ARISTOTELIO PANEPISTIMIO THESSALONIKIS (그리스)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62651-technology-for-a-more-transparent-approach-to-sharing-visiting-and-processing-data>

4 [성공사례] OptFor-EU 프로젝트, 기후변화로부터 유럽 산림을 지키다

- EU 지원 OptFor-EU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연구를 추진 중
 - 루마니아 남부 파거라시 산맥에는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는 유럽 내 몇 안 되는 원시림이 남아 있으며, 이 지역은 저지대의 내열성 참나무부터 고산지대의 침엽수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종이 공존하는 생태적 보고
 - EU 지원 연구진은 지역사회 및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해 이러한 보호구역에서 효과적인 산림 관리 방안을 연구
 - 루마니아 국립기상청의 Cheval 박사가 이끄는 OptFor-EU 프로젝트는 산림이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영향 완화에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이 산림 관리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산림은 EU 전체 영토의 약 43%를 차지하며, 탄소 흡수, 생태계 조절, 생물다양성 보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OptFor-EU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산림을 활용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에도 주목
 - 연구에는 3D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 관리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산림 성장 지도화와 도시 산림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분석

- 산림 관리자는 목재 생산, 침식, 자연재해, 수자원 부족, 기후변화 영향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산림의 변화 주기가 수십 년에 걸친다는 점이 관리 난이도를 높임
- OptFor-EU는 산림 관리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는 파리협정, 유럽 그린딜, 2030 EU 산림 전략과 연계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등 8개 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유럽 전역의 다양한 산림 유형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
-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 특히 장기 가뭄이 원시림을 포함한 유럽 산림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산림 관리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을 확인
- 이를 통해 기후-산림 생태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장기적 이해를 제공하고, 산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OptFor-EU 프로젝트

- 기간 : 2023.01 ~ 2026.12
- 예산 : 약 4 289 078 유로 (EU 4 289 076 유로 지원)
- 총괄 : ADMINISTRATIA NATIONALA DE METEOROLOGIE R.A. (루마니아)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horizon-magazine/guardians-glades-protecting-europes-forests-against-climate-change>